

올해 추석 명절도 ‘코로나 이산가족’ 재현되나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집중 완료자만 접촉면회 가능
광주·전남 돌과 감염 추정 27건…명절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올 추석(21일)에도 광주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와 자식이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 이산가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석엔 지난해와 달리 면회 조건이 다소 완화됐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선 대면 면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지지만, 접촉 면회는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된다.

병원과 시설 측에 따라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접종 면회객의 경우 요양병원·시설 내 독립된 면회 구역에서 아크릴판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시간은 10~30분으로 시설 내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13~2

6일) 내용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만, 접촉면회가 가능해졌음에도 변이 바이러스 등 돌과 감염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다중이용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들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과감염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1만8천805명 중 1만7천516명(93.1%), 요양시설은 4천505명 중 4천177명(92.7%)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전남의 경우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2만4천350명 중 이 중 1차 접종자는 99.9%(2만4천331명) 접종률을 보이며, 2차 접종 완료자도 92%(2만2천442명)에 달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요양병원·시설 집중률은 전국(88.7%·91%)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돌과감염(추정) 사례는 병원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와 총 18명이 집중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병원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총 9명의 돌과감염(추정)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안전 접종을 희망한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예리 기자

확진자들이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돌과감염 추정 사례가 많은 이유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접종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2차 접종을 완료했다더라도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부득이한 확진자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에도 이동은 자제하되,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이 2천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체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

하도록 온라인 추모·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주말부터 이어지는 닷새간 연휴기간(18~22일) 동안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된다.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와 5개구 선별진료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현행 운영과 똑같이 정상 운영되며, 의사·간호사 등 최소 5명에서 11명으로 이뤄진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선별검사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전남도는 보건소 비상진료체계와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객이 몰릴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오송지·임후성 기자

금지사, 동부권 코로나19 대응 주력

순천시 긴급 회의…道·3개市 공동 대응반 운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순천시 청 소회의실에서 ‘동부권 코로나19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부권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다잡았다.

긴급 대책 회의에는 여수·순천·광양 3개시 단체장,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부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신속한 대응 대응을 위해 ‘전남도·동부권 3개 시 공동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여수·순천·광양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확진자 정보 상시 공유, 확진자 발생 시 공동 역학조사 수행 등으로 지역 간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학교 내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학교 안팎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내 방역수칙 준수, 동선 최소화, 교실 환기 등 학교 내 방역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스타디움, 학원, 교습소 등 학교 밖 시설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교육청과도 학교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부권 환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강진·나주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동부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동부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가족 간 감염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시설 마련 및 동거가족 방역관리 ▲대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단지 내 선제검사 강화 ▲임시선별검사소 활용 선제검사 독려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어 중대대한 상황”이라며 “앞서 발생한 감염사례를 반면



김영록 지사가 지난 1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동부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부권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교사 삼아 숨겨진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시 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연휴 비상대응체계 가동

24시간 비상근무…코로나19·식중독·가축방역 등 안전성 확보 총력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18~22일) 코로나19와 식중독 등을 예방하고 가축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비상대응을 위해 감염, 환경, 동물 등 3개 분야 총 3개반 47명으로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또 5개 구청 및 보건소, 질병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과 집단식중독에 대응하고, 환경 및 가축방

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집단식중독 검사반에는 5개조 28명을 투입하고, 5개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검사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환경오염사고 대응반은 5개조 10명으로 구성하고, 대기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을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 시 현장조사와 수질검사 등으로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유입을 막기 위해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상황실도 운영해 관내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추석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신속 검사체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 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서 최우수상

광주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대한민국 관광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97곳, 해외 14개국, 관광 유관 기업 및 단체 180여 곳이 참가해 집체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광주문화관광 대표 캐릭터 ‘오매나’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미식·생태·예술·MICE 관광 대표도시로서의 면모를 홍보했다.

또 이벤트 중 ‘광주에서 인생샷 남기자’가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현장 운영 및 홍보, 관광콘텐츠, 부스 조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오송지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스 상담 ◀

절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